

온기를 모아 이웃에게로

충청신문 쌀·안성목재 성금 기탁 등
무주군에 이웃돕기 손길 잇따라

충청신문 김충현 대표가 17일 10Kg짜리 백미 100포대(280만 원 상당)를 무주군에 기탁했다. 무주군 실천면이 고향인 김 대표는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이 날도 추운데 형편이 어려워 걱정도 추위도 더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쌀을 전하게 됐다"라며 "봄은 고향을 떠나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이 발잡히고 이웃들이 잘했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전했다.

13일에도 적상면 소재 안성목재 박영근 대표와 안성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영화 위원장, 안성면 새마을부녀회 백정에 회장이 무주군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각 100만원 씩을 기탁했다.

안성목재 박영근 대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라며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려는 마음 하나가 돌, 셋이 되고 지역 전체로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성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영화 위원장은 "추고 배고플 때 전해지는 온기가 되고 싶은 위원들의 마



충청신문 김충현 대표가 17일 쌀 100포대를 무주군에 기탁했다. (사진 왼쪽) 앞서 지난 13일 적상면 소재 안성목재 박영근 대표가 무주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음을 담았다"라며 "많은 분들이 다 드림만큼 풍족하진 않지만 요긴하게 쓰여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전했다.

또 안성면 새마을부녀회 백정에 회장은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고령의 어르신 혼자 힘있게 사시는 분들도 참 많다"라며 "내 가족,



내 부모 챙기는 마음으로 모은 회원들의 정성이 귀하게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이날 기탁 받은 쌀과 성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 지역사랑 봉사단,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나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임용택 은행장, 최강성 노조위원장),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전북은행 본점에서 '2018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임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 참여, 손수 담긴 김장김치를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2011년부터 매년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전병찬 전북은행부행장을 비롯한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50여명,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등 약 60여명이 참여, 직접 담긴 김치 2,000kg를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전달했다.

또한, 전병찬 전북은행부행장은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로 소외된 이웃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익산여성의용소방대, 지역아동센터에 전기장판 등 기부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는 최근 익산여성의용소방대가 익산중앙지역아동센터에 전기장판과 이불 등을 기부해 겨울철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온기를 더했다고 전했다.

44명으로 구성된 익산여성의용소방대는 여성으로 조직된 의용소방대로 평상시 익산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강의 및 각종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다른 의용소방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하고자 방탄, 전기장판과 이불 등을 기증했다.

익산여성의용소방대(대장 남궁영래)는 "각 대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진행된 기부를 통해 비록 작은 물품이지만 열심히 뛰어놀고 공부하며,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휴비스, '희망키움 방학 한끼' 지원금 4000만원 전달

"추운 겨울, 끼니 거르지 말고 건강한 방학 보내세요~" 화학소재 전문기업 휴비스(대표이사 신유동, www.huvic.com)는 올해도 어김없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방학 중 식사를 제공하는 '희망키움 방학한끼' 사업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전주에 위치한 팔복 초등학교, 조촌 초등학교, 반월 초등학교의 239여명을 선정해 17일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희망키움 방학한끼'는 방학 중 식사 해결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하루 한끼의 식사를 지원해주는 취지로 2012년 시작됐고 매년 2번씩 여름과 겨울 방학 시작 전 진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희망키움 방학한끼' 사업은 선정된 학생들과 연계된 식당의 식재료권을 지급하거나 쌀, 부식 등의 식자재를 직접 집으로 배달해 주는 형태로 운영한다.

휴비스 전주공장장 현종철 상무는 "한창 커가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끼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며, "힘든 요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 더욱 많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휴비스 전주공장 경영지원팀 정찬호 대리 (063-210-2210 | 010-7749-6123)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정읍 이평면 황전마을 출신 이종현씨, 고향에 희망나눔성금 기탁

정읍시 이평면 황전마을 출신인 이종현 대표(씨엔케이에너저)는 대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도 현금 기부에 이어 현물(연탄)기부, 이번 2019 희망나눔 이웃돕기에 500만원을 이평면에 기탁했다.

이 대표는 사업장인 대전에서도 지역사회와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을 이루고 있으며, 고향인 이평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는 어려운 경기 속에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고향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쁜 마음으로 기탁했다"고 기탁배경을 밝혔다.

이평면 정정기 면장은 "어려운 생활 여건과 추위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지는 이때, 나눔으로 면민들에게 온정을 주시는 기탁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과 정성을 쏟아 희망으로 함께 행복한 이평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을=김대환 기자

순창 쌍치면 사회복지협의회 어르신 대상 중식봉사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쌍치면지회(지회장 배미자)는 17일 무동마을에서 마을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식봉사를 가졌다.

사회복지협의회 쌍치면지회는 지난 7월 9일 창립총회를 거쳐 매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창립 이후 쌍치면 중곡마을을 시작으로 석현, 피노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삼계탕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지난 10월에는 쌍치면분회 노인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닭도리탕을 마련해 대접했다.

배미자 사회복지협의회 쌍치면지회장은 "다른 지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회원들 모두가 봉사에 즐거움을 느끼며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쌍치면이 행복한 농촌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탄소융합기술원 임직원, '찾아가는 탄소교실' 봉사 벌여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임직원들이 지난 15일 주말을 이용해 인근 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성금전달을 했다.

기술원 임직원 80여명은 이날 '찾아가는 탄소교실'이라는 주제로 오전과 오후 각각 삼성후민빌(전주시 소재)과 선덕보육원(완주군 소재) 등 보육시설을 찾아 '탄소바사남이 들려주는 알기 쉬운 탄소이야기'를 들려주고, 탄소모형 플라네타리움 만들기와 기술원이 자체 제작한 3D프린팅기 바스타 시승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연말을 맞아 기술원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껏 마련한 성금을 보육시설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기술원이 마련한 '찾아가는 탄소교실'은 탄소바사남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탄소이야기와 탄소모형 플라네타리움 만들기, 자체 제작한 3D프린팅기 바스타 시승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도내 초·중·고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찾아가는 탄소교실'에 관심이 있거나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 및 기관 등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경영지원실(063-219-3539)로 문의하면 된다.

이날 행사를 함께한 방윤혁 원장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내 탄소전문연구기관이라는 자긍심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탄소교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남원의료원,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생필품 전달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최근 인월면 재래마을을 찾아 마을주민에게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와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떡국 나눔에는 직원들이 떡국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였으며, 박주영 원장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자리에서 박주영 원장은 "추운날씨에 의료움을 느끼고 있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정을 나눠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남원의료원은 지역사회의 중심병원으로서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